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공공도서관과 점자도서관

- 일본의 역사적 배경과 도서관의 변천을 중심으로 -

Libraries in the Current of History

- The Japanese Historical Context for the Changes in Braille and Public Libraries -

김 지 현(Ji-Hyun Kim)*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점자도서관을 깊게 이해하는 데 있다. 즉 기존의 점자도서관 연구처럼 점자도서관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의 흐름과 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변화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점, 점자도서관을 벗어난 외부의 시점에서 점자도서관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초기 점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성립과 그 목적이 같고 역할도 같았으나, 전쟁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지나면서 도서관과는 전혀 다른 복지적인 방향으로 역할이 이루어졌고, 시각장애인의 독서권운동이 일어난 1970년을 기점으로하여 점자도서관의 도서관적 역할을 재고하며, 도서관적 모습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and and deepen our knowledge of Braille libraries in Japan. This study begins with a different viewpoint than previous ones. It does not view Braille libraries solely from the institutions themselves but it locates them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Japanese society and both Braille and public libraries. It finds that although Braille and public libraries began with similar purposes, they drastically diverged after 1949 when the former's welfare center-like function for the blind became more apparent. But by the 1970s, Braille libraries shifted in the direction of its original library function at the impetus of the Blind Reading Rights Movement.

키워드: 점자도서관, 공공도서관, 시각장애자
Braille libraries, public libraries, the Blind

* 교토대학교대학원 교육학연구과 박사과정(aoisora325@104.net)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7일 논문심사일자 2005년 6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2일

1. 서론

도서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이 놓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다. 그것은 점자도서관도 마찬가지이다. 점자도서관이 놓인 시대나 사회적인 상황은 물론, 그 속에서 도서관의 움직임을 점자도서관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은, 점자도서관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점자도서관 혹은 시각장애자에게의 서비스에 대해 논하고 있는 문헌은 다수 존재한다. 이를테면 竹林熊彦는 여러 문헌에서 점자도서관과 맹인도서관운동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¹⁾, 점자도서관문제연구회는 쇼와20~30(1945~1955)년대 공공도서관의 시각장애자서비스의 경과에 대해 정리하였다(点字図書館問題研究會關東支部1984, 176~198). 또한 동연구회는 신체장애자복지법의 개정을 둘러싼 움직임과 점자도서관측의 주장을 특집호로 엮어 발간하였다(点字図書館問題研究會 1984). 『시각장애』지에서는 水谷昌史 또는 松本昌三, 市橋正晴등이 점자도서관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²⁾. 河村宏는 일본의 장애자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河村宏1984, 262~270). 그리고 점자도서관의 역사적 흐름이나 역할, 운영, 구체적인 서비스등의 내용을 정리한 『점자도서관핸드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점자도서관의 역사적 변천, 점자도서관 서비스의 문제, 혹은 점자도서관의 역할이나 자리매김과 같은 이념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이론은 점자도서관의 이

론 혹은 연구를 이루는 하나의 업적으로서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점자도서관 그 자체의 이해, 혹은 점자도서관을 도서관의 흐름과 관련지어 깊이 이해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 즉, 점자도서관을 도서관 혹은 사회적 배경이라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점자도서관을 이해하지 않고 점자도서관을 논하는 것이 어느정도 의미가 있을까.

본고는, 기존의 점자도서관에 관한 연구의 시점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점자도서관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우선 점자도서관이 도서관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점자도서관은 도서관의 변천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할 것이라는 예상,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점자도서관을 깊이있게 이해한다는 목적을 전제로, 점자도서관의 성립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점자도서관이론을 중심으로, 각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도서관의 움직임 속에서 점자도서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의 사회적 배경과 도서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및 연구서 등의 관련문헌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였고, 점자도서관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단, 본 연구는 일본의 점자도서관을 중심으로, 점자도서관을 둘러싼 역사와 사회적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점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위치등이 일본의 상황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사회적 배경이 다르듯이, 점자도서관의 변천사와 인식도 각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분석한 점자도서관의 사회적 위치와 인식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 한가지, 이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서술한 것은, 기존의

연구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전자도서관을 바라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포인트만을 간략하게 서술하였고, 전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더욱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도서관의 성립과 그 배경을 확인하면서, 그것들의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 전자도서관의 성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밝힌다. 둘째, 전쟁 전부터 전시기간에 걸쳐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심했던 시대의 도서관과 전자도서관 각각의 움직임에 서술하고, 두 기관이 어떤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는지를 밝힌다. 셋째, 전쟁 후 법적으로 정비된 사회 속에서, 완전히 분리된 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의 두 개의 흐름을 각각 이해한다. 넷째,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기관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과 「도서관 서비스의 이념」이라는 2개의 키워드로 인해, 다시 같은 목적을 지향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그 후의 전자도서관이론의 동향을 약술한다.

2. 도서관의 성립

근대서양문물의 도입에 따른 도서관의 소개와 교육의 보급을 배경으로, 서민의 독서보급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이 성립한다. 동시에, 시각장애자의 교육과 복지적인 환경이 갖추어지면서 시각장애자 사이에서 전자도서관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한 전자도서관이 성립한다. 이렇듯 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의 성립은 같은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2.1 도서관의 성립과 그 배경

근세의 일본은 다양한 교육기관이 보급되면서 서민 사이에 식자교육이 성행하고, 막부 통제하에 놓여있긴 했지만 출판 활동도 활발했다. 그것을 배경으로, 사람들 사이에 독서가 널리 퍼졌다. 당시 독서보급은 책대여꾼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 마을의 지배층과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했던 부유한 농민층은 정보에 민감하여, 그것을 수집해서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정보수집제공의 역할도 맡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학자나 승려가 자신의 장서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우기 막부말기에는 향학에 문고가 있어, 장서를 관리하고 대출했다(小川徹、山口源治郎1998, 17-18). 이렇듯 사람들 사이에서 도서관 혹은 그 원형에 해당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고 서적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한편, 막부말부터 메이지초에 걸쳐서 나라의 사절단이 구미의 도서관을 일본에 소개했다. 예를 들면, 福澤諭吉는 『서양사정』에서 「서양제국의 큰 도시에는 문고가 있다. 비브리오테키라고 한다. ... 만국의 서 모두 갖추고, 대중이 와서 임의로 그것을 읽을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마리온·소세, 西川俊作2002, 39~40), 田中不二麿는 『미국 백년기 박람회 교육 보고』에서 「현재 미국내의 큰 도시에는, 거의 공공서관을 설치하지 않은 곳 없고」라며, 미국의 공공서관의 보급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田中不二麿외1877, 21). 또한 田中은 『문부성연보』에서 공립서관의 설치를 주장하면서, 「공립서관의 설치가 매우 적은 것은 교육상의 결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조했다(田中不

二曆1876, 21-22). 그리고 1879년에 공포한 교육령의 제1조에서, 「학교 유치원 서적관은 공립 사립의 구별 없이 모두 문부재상의 감독 내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했다(小川徹、山口源治郎 1998, 37). 이렇게해서 서적관은 교육시책으로서 자리잡아 널리 보급되었다. 『문부성제10년보』 1883년에 의하면, 학교에 공립서적관이 부설된 경우도 적지 않으며, 관람료가 거의 무료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민중 활동에 의한 성과는 아니었다.

메이지 초기 일본 사회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고, 국회가 개설했으며, 헌법이 제정되고 내각제가 성립하는 등,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서관 만들기에 대한 민중과 정부의 두 움직임은 대립하는 형태를 보였다. 대부분의 민권결사 안에는 학습활동, 계몽활동, 정치활동등의 활동을 지지하는 독서시설이 만들어져, 도서관사상이 형성되어갔다. 이것은 정부에 의한 도서관 제도와는 다른, 민중에 의한 도서관 만들기의 움직임이었다. 이들 민중적인 움직임에 대하여 메이지 정부는 1880년, 집회조례를 공포하여 결사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결사내의 독서시설의 발전도 동시에 억제하였다. 또한 교육령을 개정하여, 도서관을 통제하에 두고, 신문지조례의 개정과 출판법의 제정등으로 언론의 단속을 강화했다. 그 뿐만 아니라, 『문부성시유』에서 「장서의 선택은 실로 요건 중의 제일의 요건」이라며, 「불량한 서적은 불량한 사상을 전파하므로, 그 불량한 것을 폐기하고, 선량한 것을 채용한다」³⁾고 하여, 도서의 규제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메이지 중기 이후로는 도서관과 관련된 하여, 도서관계가 성립되고 도서관령이 공포되는

등 큰 움직임을 보이지만, 정부에 의해 도서관과 도서관이 더욱 규제받게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의 하나는, 일청전쟁과 일러전쟁을 배경으로 지방개량운동이 추진된 것에 있다. 내무성지방국편 『지방자치요감』에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 가장 많이 통속적인 간이도서관을, 각지에 설립한 것은, 기뻐해야할 현상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서술하여(內務省地方局1907, 64), 지방개량사례로서 도서관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문부성은 1910년 문부대신훈령을 발하여, 「건전 유익한 도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여, 장서의 구성을 규정하였다. 또 동훈령에서 「유익한 신간도서의 증가를 꾀하고... 관외에 대출하고... 규모가 큰 도서관에 있어서는 분관을 설치하거나 혹은 순회문고를 설치하는 등 하여 될 수 있는 한 지방의 일반사람들에게 서적의 공급을 꾀할」 것을 제시하여, 도서관 기능의 충실을 강조하였다(石井敦 1978, 100-101).

이렇게해서 도서관은 서민을 교화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1900년에 34관이었던 도서관수가 1910년에는 374관으로 증가함으로써,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도서관계가 정비되고 번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의 대부분은 정부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거나, 혹은 민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졌다. 그리고 제국주의라는 배경을 지지하는 국내체제의 구축과 국민 의식의 형성이라는 국가의 목적 달성 방향으로 도서관이 인도되었던 것이다.

2.2 점자도서관의 성립

일반 대중의 독서 보급은, 상기와 같이 막부

시대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보급된 일반 서적은 시각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메이지기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큰 움직임으로서 빈민구제가 있었다. 그것은 빈민의 의료비를 원조하거나 교육비를 보조하는 것, 그리고 빈민구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야간학교, 양호시설과 병원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빈민을 위한 이러한 시설, 특히 병원을 이용한 환자 중에는 시각장애자도 있었다. 1873년 이쵸카와현의 小野太三郎구빈장(救貧場)은 시설을 확충하고 24명의 맹인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875년 5월 22일에 古川正雄, 中村正直, 津田仙 등이 라쿠젠카이(樂善會)를 설립하여 맹인구제를 제창하였고, 1876년에는 최초의 사회사업시설에의 하사금으로서 훈맹원에 대해 3000엔의 조성금이 주어져, 도쿄(東京)에 라쿠젠카이훈맹원이 설립되었다. 1889년 9월에는 도쿄훈맹아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石川倉次(1859-1944)가 변안한 「일본점자」가 선정되어, 그 이래 전국적으로 훈맹학교의 개설이 두드러졌다(池田敬正, 土井洋一 2000). 이렇게해서 서서히 교육과 점자등 시각장애자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어갔다.

이 시기는 국가의 주도하에 있긴 했지만, 도서관계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정돈되고, 각지에 도서관의 설치가 장려되어 그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도 논하여졌다. 그 최초의 이론은, 메이지39(1906)년의 万朝報(요르즈초호)에 실려 있는, 山縣五十雄의 「일본현시의 맹인사회」였다. 거기에는 점자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여져있다.

맹인용의 점자서적은 출판되는 것이 적고, 고가이며, 그 위에 상당히 부피가 커서, 거의 보통 서적의 십수배나 있다. 그러한 이유로해서, 일반 맹인은 많은 점자서를 자택에 구비해두는 것이 곤란하다. 이에 맹인용 도서관의 필요가 생기게 되므로, …(山縣五十雄 1906. 9. 6, 3)

즉, 점자도서관이 가지는 단점, 소위 고가이고 일반서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점유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점자도서관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점자도서관을 전문으로 다루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의 주장에 따라, 기부금을 모으는 일⁴⁾과 점자도서관의 설립 계획이 세워졌다. 그리고 타이쇼5(1916)년 5월 3일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에, 중도실명자인 加藤梅吉이 수집, 점역한 점자도서관을 기탁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어⁵⁾, 도쿄시혼교(本郷)도서관에 점자도서관이 설치되었다. 일본에서 최초로 생긴 점자도서관이었다. 그 이후로 잇달아 맹인열람실과 맹인도서관이 설치되어, 일반 시각장애자에게 독서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초기의 점자도서관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 그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山縣五十雄은 万朝報(요르즈초호)의 기사에서, 영국의 맹인용 도서관에 대하여 소개하고, 「…맹인용 점자서를 대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라며, 점자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山縣五十雄 1906. 9. 6, 3). 또한 타이쇼 5(1916)년 5월 3일의 도쿄아사히(東京朝日)신문의 기사에는, 加藤梅吉의

점자도서의 기부에 따른 맹인도서관 설치의 준비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점자도서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맹인은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 몇 시에 손님이 올 지 알 수 없어, 도서관이 생겨도, 매일 일부터 가서 독서하는 자는 비교적 적고, 대개는 책을 빌려가서,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의 심심풀이로, 또박또박 점자를 더듬으며 즐기고자하는 것이니, 대출이 주가 되는 것이다.

또 竹林熊彦에 의하면, 「맹인은 도서관에 오는 것부터가 이미 곤란」하며, 「그러므로 맹인도서관은, 점자도서의 대출을 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竹林熊彦 1933, 49). 이 이론들로부터 초기의 점자도서관의 역할은, 일반 시각장애자가 소장, 보관하기 힘든 점자도서를 점자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모아 관리하고, 그것을 시각장애자에게 대출,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점자도서관의 목적에 대한 이론도 찾아볼 수 있다. 나고야(名古屋)시립도서관의 阪谷관장에 의하면, 점자문고는 「불행한 맹인 여러분들을 위해 점자도서를 구비하고 그 연구와 위안을 위해 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을 당연한 역할이며, 나아가 「본시의 맹인 여러분들의 지덕향상을 희망하고 있다(間宮不二夫 1930, 2~3). 일본점자도서관의 목적도, 「유익한 점자도서를 만들고, 또 이것을 보관함과 동시에, 주된 업무로 이것들을 우송으로 대출하고, 맹인 문화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있다(竹林熊彦 1955, 228). 혹은, 1929년의 『도서관잡지』에서는, 「카고시마(鹿兒島)현립도서관에 신설한 맹인열람실의 도

서가, 문예물, 수양에 관한 것, 종교, 의학, 위생의 순서로 열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시각장애자의 독서경향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日本文庫協會 1929, 119).

이러한 초기 이론에서 보이는 점자도서관은, 처음부터 시각장애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의 필요성으로부터 성립하여, 독서 환경이 상당히 빈약한 시각장애자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지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점자도서를 제작, 제공하였던 것이다.

3. 전시기간의 도서관과 점자도서관

일반 대중의 독서보급에서부터 도서관 설치의 장려, 그리고 도서관수의 증가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뒤쫓기라도 하는 듯이, 시각장애자의 독서보급을 위한 점자도서관도 설치되었었다. 그리고 문부성이 도서관에 대하여 건전유익한 도서를 선택할 것을 규정한 것 처럼, 점자도서관도 유익한 점자도서를 만들어 대출함으로써 맹인문화의 향상에 기여할 것을, 그 목표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렇게해서 두 종류의 도서관의 역사적인 흐름이, 시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쇼와시대에 들어와 국가가 전시체제로 급격히 돌변하는 등의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두 기관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3.1 전시기의 도서관

도서관이 문부성의 관할에 놓여있었다 하더라도, 민중적인 도서관의 움직임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타이쇼에서 쇼와초기에 걸쳐서 데모크라시가 고조되면서, 도서관을 교육적 데모크라시의 기관으로 간주하고, 민중적인 도서관론이나 도서관활동이 나타났다. 川本宇之介는 「도서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 사람에게 자유롭게 형편이 가장 좋을 때 그 원하는 도서를 공급하기 때문에, 교육적 데모크라시 곧 교육의 기회균등의 정신에 합치한다. 실로 도서관은 민중의 중학교이며, 공중의 대학교이다.」(川本宇之介 1931, 5)라고, 도서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和田萬吉은 「자유로운 공기가 풍기는 민중적 회합의 장소를 관내에 마련하는 것도 못할 건 없」으며,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그 지방의 문화적 중심의 형태를 이룬」다고 말하여(和田萬吉 1924, 285~286), 개방적이고 민중적인 도서관을 제창하였던 것이다. 『시립도서관과 그 사업』제2호(타이쇼10(1921)년 11월)의 표지에는, 도쿄시립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하여, 열람 절차의 간단함, 관외대출, 동맹대출, 열람 무료, 아동서비스, 참고업무 등 이용자본위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말 이후부터, 데모크라시의 분위기가 급속히 없어진다. 그리고 농촌공황과 일중전쟁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도서관은 국민의 사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었다. 松本喜一은 『도서관잡지』를 통하여, 도서관은 「독서인의 어드바이저로서의, 직무에 정진할 것이 요구되며, 「독서의 장려」와 그 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松本喜一 1928, 257). 이러한 검열에 대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28년 도서관대회에서 문부대신의 자문에 대한 답신을 놓고, 「양서 악서라고 하는 가치판단의 주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日本文庫

協會 1928, 257)고 한 비판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부성은 일중전쟁 전부터 중앙도서관제도를 수립하는 등, 도서관의 전시체제를 확립해갔다.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장려금을 중앙도서관에 교부하고, 「좌익출판물에 관한 건」을 통첩하여 도서를 제거하거나 혹은 열람을 금지시켰다(千代田區 1968, 196). 또한 경찰에 의한 도서관 간섭과 검열도 종종 행하여졌다. 그 예는 카미이나(上伊那)도서관의 사례와⁶⁾ 고베(神戸)시립도서관의 石川捨治朗가 쓴 문장⁷⁾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출판활동의 저조와 도서관에 대한 엄격한 검열 속에서, 나가노(長野)현립도서관 등의 현립도서관들이 잇달아 그 시설을 군수공장으로 이용당하고, 관내열람도 중지되거나 축소되어 이용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리고 휴관이 되거나 소멸한 도서관도 다수 있었다. 도쿄시립도서관은 28개관 중 13개관이 휴관이 되고, 재가 되어버린 현립도서관은 8개관이었다. 194년의 공시립도서관은 4,776개관이었는데 비해, 1947년말에는 1,549개관만이 확인되어, 전시하에서 68%가 소멸했음을 알 수 있다(永末十四雄 1984, 336). 1949년에 JLA(일본도서관협회)가 간행한 『공공도서관개요 / 쇼와 22(1947)년 3월 31일조』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전제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히로시마(廣島), 야마구찌(山口), 미야지로(宮城), 치바(千葉) 등 몇몇의 도시부에서는, 비전재의 도서관보다도 미상의 도서관수가 많고, 또 전국적으로 피전재의 도서관도 적지 않았다.

3.2 전시기의 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은, 데모크라시의 분위기가 총만

했던 타이쇼기에 加藤梅吉의 기증에 따라 도쿄시혼쿄(本郷)도서관에 점자도서관이 설치된 이래, 1919년 7월 니이가타(新潟)현립도서관에 맹인열람실, 1927년 이시카와(石川)현립도서관, 1928년 토쿠시마(徳島)현립도서관에 각각 점자문고, 1929년 1월에는 카고시마(鹿兒島)현립도서관에 맹인열람실, 9월에는 나고야(名古屋)시립도서관, 나가노(長野)현립도서관에서 점자문고, 또한 같은 해에 고베(神戸)시립도서관에 각각 점자문고가 설치되었다⁸⁾. 이렇게 1920년 전후로는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시각장애자 서비스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주로 점자도서관의 제공이었다. 이러한 시설의 증가 외에도, 1914년 中村京太郎에 의해 점자잡지인 『신광(信光)』이, 1922년 5월 11일에는 오사카마이니찌신문사에 의해서 『점자오사카마이니찌(点字大阪毎日)』가 각각 창간(1943년 1월에 『점자마이니찌(点字毎日)』로 개제)하였던 것이다(池田敬正、土井洋一 2000).

점자문고와 맹인열람실 등 시각장애자를 위한 독서시설의 보급과 더불어, 시각장애자의 전국적인 활동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27년 6월에 제1회 전국맹학생의 웅변대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최초의 전국맹인보호 및 실명방지 회의가 열렸다. 또 1928년 2월에 전국맹인대회가 개최되었고, 12월에는 제1회 전국구호구료(救護救療)사업회의에서 구빈법(救貧法), 맹인구호법의 제정촉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1929년 10월에 중앙맹인복지협회의 설립, 1931년 7월에는 동협회의 주최로 맹인실명방지회의가 개최되었다(池田敬正、土井洋一 2000).

데모크라시의 사조가 벌어지고 국가정책으로 도서관이 선도되어가는 1930년대는, 점자도서관이 있어서도 그 활동이 저조했다. 독서시설의 증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미 서비스를 행하고 있었던 곳이 공공도서관내의 시설이었던 점에서, 시설, 경비에 한계가 있는 이상, 다수의 요구를 우선시킬 수 밖에 없어, 맹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갖추는 일은 뒤로 밀려나고 말았던 것이다. 1934년 중앙맹인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전국맹인보호협회의에서, 관공립도서관에 점자부를 설치하도록 문부대신에게 건의하기는 했지만, 단 한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점자도서관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岩橋武夫가 오사카의 아베노(阿倍野)에 라이트하우스(1960년에 일본라이트하우스로 개칭)를 설립하여 점자도서관이 개설된 것, 또 하나는 1938년 1월 11일에 후생성이 발족되어, 체력, 위생, 예방, 사회, 노동의 5개국과 보험원(외국)을 설치한 것이다.

맹학교에서 가르치던 岩橋武夫는 맹아동이 읽어야 할 서적이 없음을 깨닫고, 영국에서 맹인복지사업을 관찰연구한 뒤, 1935년 개인 재산을 위주로 독지가(篤志家)의 기부를 받아 10월 15일에 라이트하우스를 설립하고, 이듬해 4월에 점자도서관을 개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라이트하우스는 1938년 11월에, 사회사업법 부칙 제2항에 의해 맹인사회사업으로 인정되어, 특히 전시중에는 전적으로 실명군인의 갱생원호에 주력하였다(竹林熊彦 1955, 232-233). 1937년 4월에는 미국에서 헬렌켈러가 내일하여 각지에서 강연을 하는 애맹(愛盲)운동을 전개하여, 장애인운동과 라이트하우스 활동에 영향

을 끼쳤다(竹林熊彦 1955, 233: 池田敬正、土井洋一 2000, 117). 또 토크북(talking book)의 개발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결국 토크북은 보급되지 못했고, 점자도서관도 시각장애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서관이기 보다는 맹인단체의 자주활동과 맹인보호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圖書館問題研究會 1981, 237-238).

국가전시체제가 확립되어가는 속에서, 특별히 사회사업을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하나는 노동자의 실업 및 전업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부상병에 대한 보호시설의 문제였다(杉山元治郎 1938, 28, 30). 1938년에 발족한 후생성은, 「좁은 뜻의 국민생활의 안정만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을 더욱 커다란 희망과 광명의 토대 위에 세우고 안정된 반석 위에 두는 것을 이상」(牧賢一 1938, 26)으로 한, 진정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증가하는 부상병과 그 가족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실시하였다. 이를테면 노동자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확립을 꾀하고, 노동자후생연금보험법을 공포하였다. 또 부상병보호대책심의회관계와 군사보호원관계, 부상병의료위원회관계 등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상병보호원이 다수 설립되었고, 군인원호회도 설립되었다. 특히 1938년 10월에는 실명부상병교육소가 도쿄맹학교내에, 실명부상병기숙사가 도쿄문리과대학내에 설립(1948년 7월에 국립광명기숙사로 개조)되었다(池田敬正、土井洋一 2000).

전쟁에 의한 실명군인의 증가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했다. 이것에 대해서 岩橋武夫는 실명군인을 사회문제로 단언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들에게

오랫동안 재교육을 실시하여, 그 여생을 의식주에 대해서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 유능한 인재로서 국가사회에서 활약시켜야 한다」(岩橋武夫 1938, 44). 그리고 일본의 맹인에 대한 사회사업의 대책을 비난하면서, 점자인쇄물의 무통제와 고액으로 사지 않으면 안되는 경제적 부담, 점자서적의 내용과 종목의 빈약, 그리고 점자도서관의 열악한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던 것이다(岩橋武夫 1938). 나아가 「실명군인의 대책이야말로 일본맹계의 숙제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가급적 해결하는 혁신의 절호의 기회이다」(岩橋武夫 1938, 43)라고 주장하여, 실명군인의 재교육 방법과 직업훈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그 속에서 岩橋는, 교육과제로서 면학을 위해 점자를 습득하고, 「전문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까지도 입학하여」(岩橋武夫 1938, 48~49), 모든 학문을 정안자(正眼者)와 동등하게 공부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점자도서관을, 그들의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안정된 여생을 지내기 위한 수단, 소위 갱생기관의 하나로서 간주하였던 것이다.

4. 전후(戰後)의 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의 두 개의 흐름

전후에는 도서관과 점자도서관, 양쪽 다 법제도에 따라 정비되어, 정해진 법을 바탕으로 각각 발전해간다. 그러나 전시기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의 역사적 흐름은, 법제도를 계기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 점자도서관은 신체장애자복지법 안에서 갱생원호시

설로 정해지고, 도서관에 대하여 규정한 도서관 법에는 일절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법률의 규정으로인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시각장애자의 갱생원호시설로서의 점자도서관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4.1 전후의 사회상황과 도서관

전쟁이 종결된 1945년 이후, 일본에서는 헌법과 노동기준법,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사회교육법 등의 법률을 공포하였고, 미국교육사절단의 내일로 인한 교육개혁이라는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했다⁹⁾. 그리고 1949년 6월에 공포된 사회교육법 제9조에, 도서관은 「사회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해서 법제도적으로 도서관은, 국민의 교육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더욱이 도서관 관계자는 이 시기를 개혁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 도서관 개혁을 진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국제사회에 들어서서 명예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면, 모름지기 국민 각계 각층 각자의 교양체제를 정비하고, 문화의 보편화를 꾀하며, 그 수준을 높여서 시세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고, 이러한 것은 주로 도서관의 사명에 속한다. ...전력을 다하여 도서관이 전면적인 진흥을 꾀하고, 이에 국가재건의 원대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囊田武夫、小川剛 1968, 128).

그리고 1950년 4월, 도서관법이 공포되었다. 이 도서관법은, 당시 문부성의 입법담당자였던 西崎惠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도서관의 바람직한 모습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즉 「새로운

도서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새로운 도서관이 행하는 서비스 활동을 도서관봉사로서 규정하」였던 것이다(西崎惠 1950, 10). 그 후 도서관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1957년에 도서관법 개정의 초안이 발표되었고(日本文庫協會 1957, 554-557), 이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渡辺進 1958, 37-39), 결국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도서관 체제가 정돈되어가는 한편에서, 민중을 위한 농촌도서관운동이 일어났다. 浪江慶은, 「농촌도서관 보급운동」은 「지금까지의 교육활동의 최대의 결합인 사회교육의 결여를 극복하는 상당히 큰 힘」이 된다고 하여, 농촌도서관운동의 의의를 주장하였다(浪江慶 2001, 9). 1962년 문부성은 농촌지역의 생활 개선과 생산향상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으로서 「농촌모델도서관」의 구상을 세우고, 국고보조를 얻어 1964년에 5개의 농촌모델도서관을 설치하였다(石塚正成 1964, 46-47). 그리고 1950년대말 이후의 고도경제성장기에 농촌이 도시로 변모함과 더불어, 농촌도서관은 지역문고로 연결되어, 그 후에 도서관 만들기 주민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1950년부터 1960년대의 도서관은 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도서관의 신개축이 많이 행해져, 밝고 근대적이며 호화롭게 되어갔다. 동시에, 독서운동을 행하여 주민의 독서의욕을 불러일으켰다. 도서관 서비스면에 있어서는, 관내열람중심의 시스템에서 관외봉사시스템으로 중점이 바뀌었고, 관내 개가방식이 채용되었으며, 참고업무서비스가 실천되고 확립되어갔다. 또한 『중소도시의 공공도서관의 운영』에서, 부현(府縣)립도서관과 시정촌(市

町村)립도서관의 기능분화와 각각의 특질이 명백하게 밝혀져, 도시도서관에서의 분관개설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체계화가 이루어져갔다¹⁰⁾.

그렇기는 하지만, 사회의 급성장과 도시화로의 변화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은 미정비 상태였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石井桃子는 영미와 캐나다의 아동도서관을 소개하고, 일본에서도 어린이 도서관을 「우체통 수만큼」 늘릴 것을 제창하였다(石井桃子 1965, 210-212). 이를 계기로 도시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문고만들기운동이 퍼졌다. 이 운동은 단순히 문고의 설치를 요구한 것 뿐만이 아니라, 전문직원, 자료비, 분관망의 정비 요구와 같은 실질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네리마지역문고의 독서서클연합회의 요망서에는, 자료비의 삭감은 주민서비스의 저하로 연결되고, 도서관 직원에게 전문성이 필요하며, 사서의 채용을 제도화 해주기를 바라고, 지역과 마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 중심의 분관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등의 요망이 쓰여져 있다(図書館問題研究會 1976, 93-95).

이와 같이 전후 일본사회의 성장과 변화와 더불어 도서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그것은 도서관의 외관이나 수와 같은 외적인 충실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전문직원 등 내적부분에서도 충실해져간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다양한 도서관활동을 배경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도서관에 대한 기대나 요구를 하는 등, 주민의 의식도 높아져갔다. 즉 도서관 이용은 권리라는 인식이 자라났던 것이다.

4.2 갱생원호시설로서의 점자도서관

후생성은, 전쟁직후부터 생활빈곤자의 생활 원조와 생업자금대여를 하고, 실업보험법과 아동복지법을 공포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을 꾀하였다. 그런 가운데 1949년 12월 신체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은 점자도서관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전시중 점자도서관이 실명군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하였다고는 하나, 점자도서관의 역할은 시각장애자에게 독서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지덕향상과 맹인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학, 위생과 같은 필요한 전문지식도 제공하는, 소위 도서관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법에 앞서 제정된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를 위한 「갱생원호시설」(정확하게는 갱생원호시설 중에서 「시각장애자 정보제공시설」)로 지정되었고, 후의 도서관법에서는 점자도서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점자도서관이 갱생원호시설로 지정되어 좋은 점도 있었다. 그것은 점자도서관 사업에 대하여 나라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원조한 것이다. 전쟁전부터, 빈약했던 점자도서관의 출판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국맹인보호회의가 민간의 점자출판사업에 대한 국가보조와 국립점자출판소의 설치를 거듭하여 건의하고 점자도서관의 대량공급을 확보하도록 호소하였지만, 그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고, 장서를 보충하기 위하여 점역운동이 조직되고, 민간의 점역봉사에 의해 점자도서관이 공급되고 있었다(図書館問題研究會 1981, 239). 그러던 것이 신체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후, 공립점자도서관에 대해서는

1954년부터,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1966년부터 사무비와 시설정비에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또한 후생성은 1954년부터 점자 도서, 1961년부터 녹음도서를 일본점자도서관과 일본라이트하우스에 위탁, 제작하여 각지의 지정된 점자도서관에 장기대출을 행하였다(点字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会 1982, 38). 그 외에도 자치체와 관계단체의 원조 혹은 위탁에 의하여 테이프잡지, 점자잡지도 제작, 대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자료의 빈곤 상태의 대책의 하나로, 후생성은 전국의 지방 공공 단체의 지정도시에 해세 점역봉사원과 낭독봉사원을 양성하고, 기존의 점역봉사 경험자를 등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점자도서의 증가와 보급에 있어서 점자도서관의 활동에 협력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다(図書館問題研究會 1981, 239-240).

그러나 상기와 같은 상황은 오히려 시각장애자의 독서환경을 한정하는 격이 되어버렸다. 그때까지 공립도서관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자 부문의, 도서관의 시설이나 경비의 한계, 다수의 요구의 우선, 그리고 국고보조도 받을 수 없다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잇달아 점자도서관에 개편되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점자도서관이 소장하고 제작하는 자료는 그 수도 적을 뿐더러 내용적인 치우침도 심했다. 그것은 점역, 낭독 봉사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가 주로 문학서였고, 점자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만드는 체제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図書館問題研究會 1981, 241). 더욱이 1947년 학교교육법에 의해 맹농아동의 의무취학이 결정되고, 1950년 맹농학교 및 양호학교의 취학장려에 관한 법률의 공포 등으로(池田敬正、土井洋一

2000) 시각장애자의 교육이 전진하게 되기는 했지만, 점자도서관에는 학술전문서나 학습서와 같은 자료는 거의 없고, 전문자료의 제공은 공공도서관의 일이라며 자료의 제공을 거부했던 것이다(日本図書館協會障害者サービス委員会 1996, 26).

고도경제성장과 도시화라고 하는 격심한 변화 속에서, 생활환경 개선의 하나로, 이용자가 어린이문고운동과 도서관 만들기 주민운동, 도서관에 대한 요구 등 활동이 일어난 것 처럼, 맹학교의 의무교육에 의해 눈을 뜬 시각장애자도 점자도서관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스스로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것이 1967년 11월에 결성된 「맹학생도서관 SL(Student Library)」였다. 이것은 관동(關東)지구의 일 반대학에서 배우는 30명의 맹학생으로 조직되어 있는 일본맹대학생회가, 몇몇 대학의 점역서클의 도움을 빌려 운영하던 것으로, 선배나 자신들이 다 쓴 점자 혹은 테이프 형태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굵어보아, 라벨을 붙이고, 북카드를 쓰며, 분류하여 책자형의 목록을 만들어 회원에게 배포하여 공동이용하는, 문고활동과 같은 것이었다(図書館問題研究會 1981, 85). 그 후 SL은 본격적인 도서관 만들기를 목표로 사회복지사업진흥회와 일본점자도서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그것은 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자의 갱생원호시설이며, 이런 따위의 업무는 문부성이 행해야할 업무라는 이유에서였다(図書館問題研究會 1981, 86). 이 이유가 시각장애자의 독서환경을 한정하고 그 확대를 가로막아버렸던 것이다.

5. 1970년대 이후와 독서권 운동

독서보급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흐름을 가져왔던 도서관과 점자도서관은, 전후의 법률적인 정비에 의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갱생원호시설로서의 점자도서관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1970년 이후가 되면 공립도서관이나 시각장애자 스스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점자도서관은 도서관임을 다시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갱생원호시설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5.1 독서권 운동과 공립도서관

(1) 독서권 운동과 공립도서관의 움직임

1960년대 이후,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도서관의 내실도 꺾여지던 중, 1963년 일본도서관협회가 『중소도시의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공공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은, 자료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그룹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그 위에 무료로 자료를 제공한다」고 서술되었다(日本図書館協會 1963, 21). 또 1970년에는 『시민의 도서관』이 간행되었다. 여기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시정촌립도서관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 시립도서관이 해야 할 서비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거기서는,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다(日本図書館協會 1970, 10-11). 그러나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소위 장애인, 시각장애자는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자 서비스에 대해

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자의 독서환경은 점자도서관 혹은 맹학교 점자도서관이라는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면학에 노력하는 시각장애자 학생은, 학습서나 전문서 등의 자료를 스스로 수집, 이용,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한다고 하는 공립도서관 이념의 모순을 깨달았던 것이다. 市橋正晴는 당시의 의문을 다음과 같이 썼다. 「청안자(晴眼者) 친구들이 이용하고 있는 히비아(日比谷)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같은 도민이며 국민인 우리들은 왜 이용할 수 없는가」(図書館問題研究會 1981, 86). 그리고 1969년 6월, 일본맹대학생회, SL사무국, 도쿄시력장애자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회, 이렇게 3자가 히비아(日比谷)도서관과 협상을 하고, 1970년부터 녹음낭독서비스와 시범케이스이긴 하지만 대면낭독서비스가 개시되었다.

1970년 6월, 히비아(日比谷)도서관 이용자회, 히비아(日比谷)도서관 낭독자의 회, 테이프아마비코의 회, 점자자유미의 회 등 4개의 단체가 더 참가하여, 시각장애자 독서권보장협의회(이하 「시독협」으로 약칭함)가 결성되었다(視覚障害者讀書權保障協議會 1972, 112). 그리고 1971년의 전국도서관대회(기후(岐阜)현)에서 시독협이 「시각장애자의 독서환경정비」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장애인 서비스의 추진이 결의되었다(日本図書館協會障害者サービス委員會編 1996, 27). 이 호소문에 의하면, 「독서는 인간의 문화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며, 나라 및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

무가 있다면, 시각장애자의 독서할 권리도 당연 보장해나가야 한다. ...도서관은 도서자료를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이며, 시각장애자도 일반공중으로서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독서는 일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인간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행위로, ...문화행정, 사회교육행정(문부성소관)의 범주에서, 구체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視覺障害者讀書權保障協議會 1972, 113-114). 그 후 1973년에 도쿄의 히노(日野)시립도서관, 1974년에 오사카부립유히가오카(夕陽ヶ丘)도서관에서, 시각장애자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장애자서비스가 개시되었다(日本図書館協會障害者サービス委員會 1995, 16). 또한 1975년 10월부터는 국립국회도서관이 전국의 공공, 대학, 점자도서관을 접수창구로 하여, 「학술문헌 녹음서비스」를 개시하였다(日本図書館協會障害者서비스委員會編 1996, 27).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4년 10월, 전국도서관대회(도쿄(東京))에서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테마로 부회가 설치되었고, 더욱이 1975년의 대회(시마네(島根))에서 부회결의를 받아 1978년 일본도서관협회내에 관동지구와 관서지구의 2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는 「장애자서비스위원회」가 설치되었다(日本図書館協會障害者서비스委員會編 1996, 27-28).

한편 문부성은 1976년부터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점자도서등 구입비 보조사업」을 개시하였고, 우정성도 종래부터 있었던 「맹인용 녹음물등 발수(發受) 시설」제도에 더하여, 1976년 1월부터 「신체장애자용 서적소포」제도를 설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해 실시하게 되었다(日本図書館

協會障害者サービス委員會編 1996, 28).

(2) 장애자서비스의 이론적 뒷받침

도서관계가 시각장애자서비스를 공공도서관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사실은, 이론면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1970년의 『시민의 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서비스로서 시각장애자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지만, 1976년의 『시민의 도서관-증보판』에서는 「그 후의 발전, 기타」항목에 「장애자 등에 대한 서비스」가 추가되어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시립도서관이 전역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세밀한 서비스망과 시민 각층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눈과 귀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 ...그 외 여러가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서술하고 있다(日本図書館協會 1976, 164).

도서관에 있어서 장애자의 개념이, 신체적으로 부자유함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도서관 이용에 부자유함이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은, 1981년의 국제장애자해였다. 그 때까지는 「장애자서비스=시각장애자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에 대하여 河村宏는 국제장애자해의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河村宏 1981, 15-18). 그 이후, 도서관에 있어서 장애자서비스의 개념이 확립되어갔던 것이다. 예를 들면, 田中華治는 장애자서비스를, 「종래의 도서관활동만으로는 이용이 불가능 혹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제공서비스, 혹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자료제공에

관한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활동 혹은 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田中章治 1982, 19). 또는 岡室公平은,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고」 정보입수가 곤란한 사람들을 「정보장애자」라고도 하였다(岡室公平 1992, 156-157). 그리고 공립도서관이 행하여야 할 활동과 서비스의 목표를 제시한, 1995년 간행의 『공립도서관의 임무와 목표 해설 증보판』에는, 장애자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 즉 심신에 장애를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다양한 조건을 가진 이용자에게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나 자료, 서비스 방법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政策特別委員會 1995, 34). 또한 동서의 「공립도서관의 역할과 요건」에서는 「장애자, 비식자인 사람, 재일외국인 등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전진시킨다」고 서술하고 있으며(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政策特別委員會 1995, 19), 「알 자유의 보장」에 대해서는 「도서관은, 모든 주민의 알 자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장애자, ...등의 장애자와 더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政策特別委員會 1995, 24). 더욱이 시(구)정촌립도서관서비스에 대해서는, 「특히 신체장애자나 차별 받는 부락의 주민 가운데, ...도서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알리는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政策特別委員會 1995, 33).

이상과 같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권리의식

은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자 자신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도서관의 이론적인 면이나 도서관측에 있어서도, 장애자서비스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당연히 해야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쟁전에도 있었다. 나고야(名古屋)시립도서관의 阪谷 관장은 점자문고의 개설에 대하여, 「불행한 맹인 여러분들을 위해 점자도서를 구비하고 그 연구와 위안을 위해 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창립 당초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間宮不二雄 1930, 2). 그러나 도서관 이용이 권리이며, 장애자 혹은 시각장애자에 대한 서비스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하는 공립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서비스라는 이념이 보급되어 서비스 개념이 정착한 것은, 이 시기부터였다.

5.2 도서관으로서의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자의 독서권운동이나 공립도서관의 장애자서비스의 개시와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점자도서관 내부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시각장애자의 갱생원호시설로서 법적으로 정착된 이래로, 그 법적 자리매김을 이유로 정보제공이라는 기능을 소홀히 해왔던 점자도서관이, 다시 도서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시독협이 공립도서관에 대하여 개방운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교과서나 참고서, 학습서와 같은 자료의 부족, 또한 점자도서관의 장서로는 독서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등의 배경이 있었다(点字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 1982, 40). 그리고 점자도서관이 그러

한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갱생원호기관의 역할이 아니라며 거절했던 것에 대하여, 시각장애자는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독서는 권리라는 생각이 보급되고, 시각장애자가 독서권운동을 하게 되면서, 그 때까지의 점자도서관의 서비스 개념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의 내부에서, 점자도서관의 종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라이트하우스의 水谷昌史는, 「가장 중요한 도서관 서비스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종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점자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빈곤으로 연결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水谷昌史 1979, 18~19). 또 「맹인복지업무를 전부 점자도서관의 세계에 떠맡기는 것은, 도서관 서비스의 저하로 연결된다. 「하나 하나의 업무의 자리매김을 명확히 하여, 그 확립을 지향해야」한다고 제시하였다. 혹은 카와사키(川崎)시복지센터 맹인도서관의 市橋正晴는, 점자도서관 본래의 업무의 문제점과 더불어, 부수된 업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도서관 본래의 업무마저도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떠맡게 되어버리는 것일까. 즉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수적인 서비스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중요한 서비스」라고 하였다(市橋正晴 1977, 44-45). 더욱이 松本昌三는, 조직의 틀을 넘어선 개혁으로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점자도서관을 설치할 것」과 「점자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의 기능만을 분리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松本昌三 1979, 27).

그리고 1984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이러한 이론은 더욱 확고해져, 점자도서관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론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론의 내용은, 점자도서관의 의미의 고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에게 정보제공의 역할을 해온 도서관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단순히 시각장애자를 위한 갱생원호시설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다. 이것은 법개정의 검토안의 하나가, 「점자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신체장애자복지센터 B형(맹인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橫澤忠 1984, 4).

점자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해왔던 것, 혹은 그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에 관한 이론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점자도서관문제연구회편집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의 독서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기능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点字図書館問題研究會編集部 1984, 1). 혹은 河合和美는, 「점자도서관도 도서관이어야 한다」고 하여,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있다(河合和美 1984, 27). 또 카와사키(川崎)시맹인도서관의 新井健司도 「점자도서관계의 움직임을 되돌아볼 때, ...갱생원호시설로서의 법적인 틀에 묶여있으면서도, 도서관기능의 충실을 위한 노력등이 축적되었」다고 논하고 있다(新井健司 1984, 31).

이제까지 점자도서관이 행하여왔던 기능의 강조 외에, 이후의 점자도서관이 다하여야 할 역할의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도 논하여졌다. 예를 들면, 일본점자도서관의 直居鐵는, 「이미 공공도서관이 모든 장애자에 대하여도 적절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오늘날, 점자도서관이 완수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서술하고 있다(直居鐵 1984, 10). 혹은 점자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瀬川三枝子は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도서관」이 친근한 존재가 되었고, 정보화시대인 지금, 법적 자리매김은 어쨌든 점자도서관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점자도서관을 시각장애자의 중요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도서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원으로서의 자각이 불가결하다」고 말하였다(瀬川三枝子 1984, 13-14).

이상에서 보듯이, 시독협 활동과 공립도서관의 시각장애자에 대한 서비스 개시로 인하여, 그때까지 시각장애자에게 서비스해왔던 점자도서관은 주로 내부에서부터 점자도서관의 의미와 서비스의 개념을 재고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인 고찰이 직접적으로 점자도서관의 활동에 변화를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이들 이론에서는 아직도 자료제공기능의 불충분함, 학습서나 전문서의 부족, 점자도서관 직원의 전문성의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에, 점자도서관의 서비스 이념과 도서관으로서의 이론적인 자리매김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 점자도서관 이론의 동향

본 연구는 일본의 점자도서관을, 기존의 연

구방식처럼 점자도서관만을 바라보는 시점과는 달리, 일본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도서관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그 성립과 변천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에 있어서는, 점자도서관도 도서관의 한 종류이며, 따라서 도서관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하였다. 그 결과, 각종 관련 연구문헌을 통하여, 점자도서관과 도서관이 공통된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 예상이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법제정과 관련하여 점자도서관에 대한 사고방식과 인식이 크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점자도서관의 역사적 변천 중에서 특기할 사항이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디지털화 등과 같이 사회가 정보화되고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는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나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동향은 도서관에 대하여 정보제공의 역할을 강요한다.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점자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립도서관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그리고, 저작권, 자료부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서비스 이념에 기초하여, 도서관측은 시각장애자 서비스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점자도서관도, 이론적, 개념적인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도서관으로서의 활동, 특히 자료제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점자도서관의 서비스 이념을 확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확산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점자도서관에 대하여 논하던 이론은 점차로 줄어들고, 점자도

서관뿐만이 아닌 공립도서관까지 포함한 기관에 있어서의 시각장애자 정보서비스의 내용으로 이론이 옮겨간 것이다. 또한 서비스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자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장애자 서비스」로서, 도서관 이용에 부자유함이 있는 사람들 혹은 정보획득에 부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히라카따(枚方)시립 쿠즈하(楠葉)도서관의 石橋進一가 「어느 공립도서관에서도 장애자 서비스는 가능하며, 게다가 공립도서관이 아니고서는 출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石橋進一 1993, 262), 공립도서관에 있어서 장애자 서비스의 실시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를 받는 측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 즉 도서관원의 입장에 (시각)장애자를 채용하여,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해하는 관점에서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논하여지고 있다.

다만, 이상과 같이 도서관에 있어서의 서비

스의 변화나 이론의 흐름을 고려할 때, 공립도서관의 시각장애자 서비스와 점자도서관의 서비스와의 차이가 애매하게 된다. 시각장애자에 대하여 점자도서관, 녹음도서관,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같다면, 시각장애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자도서관의 존재 의의는 열어질 것이다. 정보제공기능에 관해 말하자면, 이제까지 그 기능을 소홀히 해왔던 점자도서관이, 사회나 이용자의 변화와 요구에 의해서, 그때까지 정보제공을 제1의 활동으로 삼아왔던 공립도서관의 뒤를 쫓는 격이 된다. 이러한 흐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점자도서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아직 해명되지 않은 과제는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이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본문 중에서, 옛날 문헌을 인용한 경우, 번역에 있어 오래된 표현에 대해서는 그 의미만 살려 현대어로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新井健司. 1984. 点字図書館の存在を問い直す重要な時期をどう見るか. 『点字図書館問題』, 第15號: 31-32.
- 千代田區編. 1968. 『千代田図書館八十年史』, 東京: 千代田區.
- 市橋正晴. 1977. 視覚障害者の情報攝取と点字図書館がかかえる諸問題. 『視覚障害』, 35: 40-48.
- 池田敬正、土井洋一編. 2000. 『日本社會福祉綜合年表』, 京都: 法律文化社.
- 石橋進一. 1993. 障害者サービスは公立図書館の貸出カウンターから始まる. 『図書館界』, 45(2): 262-269.
- 石井敦編. 1978. 『図書館史: 近代日本篇』, 東京: 白石書店.
- 石井桃子. 1965. 『子どもの図書館』, 東京: 岩波書店.
- 石川捨治朗. 1952. 官憲と図書館. 『図書館雜

- 誌』, 46(11): 290.
- 石塚正成. 1964. 公共図書館の歴史的發展. 『社會教育』, 19(10): 42-47.
- 岩橋武夫. 1938. 失明軍人とその社會問題 (上). 『社會事業研究』, 26(8): 7-15.
- 岩橋武夫. 1938. 失明軍人とその社會對策(中). 『社會事業研究』, 26(9): 43-51.
- 岩橋武夫. 1938. 失明軍人とその社會對策(下). 『社會事業研究』, 26(10): 25-34.
- 上伊那図書館編. 1960. 『財団法人上伊那図書館三十年史』, 伊那: 上伊那図書館.
- 河合和美. 1984. 福祉センター化の後にくるネットワーク?. 『点字図書館問題』, 15: 27-29.
- 川本宇之介. 1931. 『社會教育の體系と施設經營 經營篇』, 東京: 最新教育研究會.
- 河村宏. 1981. 國際障害者年における図書館の役割. 『図書館雑誌』, 75(1): 15-18.
- 河村宏. 1984. 日本における障害者サービスの發展『としょかんサービスこれからの課題』,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262-270.
- 牧賢一. 1938. 戦時下に於ける社會事業觀念の轉換に就て. 『社會事業研究』, 26(11): 23-29.
- 間宮不二雄. 1930. 公共圖ト點字文庫-名古屋市立圖點字文庫ノ狀況. 『圖研究』, III-1(9): 1-25.
- マリオン・ソシェ, 西川俊作編. 2002. 『福澤諭吉著作集 第1卷 西洋事情』, 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松本昌三. 1979. 視覚障害者をめぐる図書館の課題. 『視覚障害』, 42: 23-31.
- 松本喜一. 1928. 図書館週間に臨みて. 『図書館雑誌』, 22(10): 257.
- 水谷昌史. 1979. 点字図書館の現状と問題点. 『視覚障害』, 42: 14-23.
- 文部省. 1883. 明治十五年書籍館表. 『文部省第十年報』, 東京: 文部省, 992-993.
- 永末十四雄. 1984. 『日本公共図書館の形成』,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 内務省地方局編. 1907. 『地方自治要鑑』, 東京: 内務省地方局.
- 直居鐵. 1984. 点字図書館について. 『点字図書館問題』, 16: 9-11.
- 日本図書館協會. 1929. 第二十二回全國圖書館大會記事. 『図書館雑誌』, 110: 20-53.
- 日本図書館協會. 1963. 『中小都市における公共図書館の運營』,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 日本図書館協會. 1970. 『市民の図書館』,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 日本図書館協會. 1976. 『市民の図書館-増補版』,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 日本図書館協會障害者サービス委員會編. 1996. 『障害者サービス』,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 日本図書館協會障害者サービス委員會編. 1995. 『すべての人に図書館サービスを-障害者サービス入門-』,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 日本図書館協會図書館政策特別委員會編. 1995. 『公立図書館の任務と目標 解説 増補版』,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 西崎惠. 1950. 『図書館法』, 東京: 羽田書店.

- 小川徹、山口源治郎編. 1998. 『図書館史－近代日本篇』, 東京: 教育史料出版會.
- 岡室公平. 1992. 公共図書館における障害者サービスの確立をめざして－枚方市立図書館における障害者サービスの歩み－. 『図書館界』, 44(4): 156-165.
- 太田爲三郎. 1929. 彙報『図書館雑誌』, 113(4): 117-120.
- 西藤壽太郎. 1967. 公共図書館－この10年の進歩の度合い. 『図書館界』, 19(4): 158-161.
- 佐藤眞. 1957. 図書館法改正委員会報告. 『図書館雑誌』, 51(12): 554-559.
- 瀬川三枝子. 1984. 「本の香り」の図書館づくりを. 『点字図書館問題』, 16: 12-14.
- 視覚障害者読書権保障協議會. 1972. 視覚障害者の読書環境整備を. 『図書館雑誌』, 66(3): 112-115.
- 杉山元治郎. 1938. 戦時戦後の社會事業. 『社會事業研究』, 26(9): 27-30.
- 竹林熊彦. 1933. 点字図書と盲人図書館運動. 『図書館研究』, VI-1(21): 37-53.
- 竹林熊彦. 1955. 『特殊図書館』, 東京・京都: 蘭書房.
- 田中不二麿. 1876. 公立書籍館ノ設置ヲ要ス. 『文部省第四年報』, 東京: 文部省, 21-22.
- 田中不二麿著. 1877. 『米國百年期博覽會教育報告 3卷』, 東京: 文部省.
- 田中章治. 1982. 障害者サービスの現状と課題－その理論的實踐的飛躍をめざして－. 『図書館界』, 34(1): 17-23.
- 点字図書館ハンドブック編集委員會編. 1982. 『点字図書館ハンドブック』, 東京: 日本盲人社會福祉施設協議會.
- 点字図書館問題研究會. 1984. 臨時特集 身障福祉法改正と「点字図書館」1. 『点字図書館問題』, 第15號.
- 点字図書館問題研究會編集部. 1984. 私たち点字図書館員は不安を感じずにはられません. 『点字図書館問題』, 第15號: 1-3.
- 点字図書館問題研究會關東支部. 1984. 昭和20～30年代における視覚障害者への図書館サービス－公共図書館を中心に－. 『としょかんサービスこれからの課題』,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176-198.
- 図書館問題研究會編. 1976. 『図書館づくり運動入門』, 東京: 草土文化.
- 図書館問題研究會編. 1981. 『障害者と図書館－図書館奉仕の原点としての障害者サービス－』, 東京: ぶどう社.
- 裏田武夫、小川剛. 1968. 『図書館法成立史料』, 東京: 日本図書館協會.
- 和田萬吉. 1924. 地方文化の中心としての圖書館 (下). 『図書館雑誌』, 61: 284-286.
- 渡辺進. 1958. 立法の基本方針に混亂がありはしないか. 『図書館雑誌』, 52(2): 37-39.
- 山縣五十雄. 1906. 日本現時の盲人社會. 『万朝報』, 第四千六百八十號, September 6: 3.
- 横澤忠. 1984. 身体障害者福祉法改正を巡る動きから. 『点字図書館問題』, 第15號: 4-7.
- 浪江虔. 2001. 『農村図書館: かく生れかく育つ』, 東京: 日本図書センター.